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

- 필리핀의 노 사제 '페페' -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정말 일어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실은 노인의 발치라는 것
하룻밤 사이의 성공은 보통 15년이 걸린다는 것
어렸을 때 여름날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걷던 추억은
일생의 지주가 된다는 것

삶은 두루마리 화장지 같아서 끝으로 갈수록

더욱 빨리 사라진다는 것

돈으로 인간의 품격을 살 수는 없다는 것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매일 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도 여러 날 걸린 일을

우리는 하루만에 하려 든다는 것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한이 된다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산 꼭대기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행복은 그 산을 올라갈 때라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삶을 다 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일까?



◀그땐 그랬지▶ “샘표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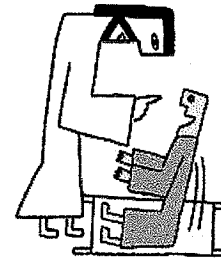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빛깔을 보세요 깨끗한 향기
입맛을 돌구는 샘표 간장!”

간장을 집에서 담그는 것이 일상이던 시절,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을 주던 가게에서 파는 샘표간장에 참기를 몇방울 떨어뜨리면 아주 훌륭한 반찬도 되었습니다. 몇일전 참기를 떨어뜨린 간장에 김밥을 말때 문득 어릴 때 말아보던 냄새가 맡아져 마음이 찡했습니다. 어느덧 간장 하나에도 그리움이 들어있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3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8월 29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어느 시골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시간이 되었는데 예배인도를 하셔야 될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

다. 본당에 가득 앉아 있던 성도님들은 프로젝터로 주기철목사님 신앙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교회 청년 하나가

“목사님께서 음식을 잘 못 드셔서 배탈이 나 누워 계십니다.” 하니 그냥 수요일예배가 끝났습니

다. 한 참 뒤에 사택에 가보니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사택에

가득 모여 목사님께서 빨리 일어나시기를 바라며 다들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가 배탈에는 매실주를 마시면 된다고 하니 집사님 한 분이 열린 집에 가서

매실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너도나도 “우리 집에도 매실주 있는데” 하면서 매실을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가 배탈 났다고 예배를 빼먹어봐요. 아마 난리 날걸요. 이참에 매실주 좀 많이 걸어 놔야지”

만나면 늘 재미있고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전남장성 산골짜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고향교회의 송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최형우-

사랑이 들어가니 매실주도 약이 되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의 경험은 우리가 무엇이 근본적이고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은총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예수 믿는게 좋고 사람이 좋고 사는게 행복할 것입니다.

◀답살 듣는말 한번쯤 하기▶

남편: “당신 입고 있는 옷 상표가
뭔지 보여 주세요?”

아내: “왜요?”

남편: “천사표인가 보려고!” ♡ ♡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85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 (시 13)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364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최재학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3:31-32 (누가 13:18-19)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 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천국은?(3) 작은 것도 소중한 곳	김성국 목사
특송 Hymn		윤형권 집사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8.9월의 예배위원◆

◆9월의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주 일	예배와 모임
29	최재학	추미선	3구역	5	구역예배(10)
5	현석호	최현철	4구역	12	믿음의어머니기도회(14)
12	김순자	한상미	5구역	15	성찬주일 은 십자가성가대(4남)
19	김영길	한상숙	6구역	26	식사친교(추석)
26	김종건	한상순	청년부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 <등록하셨습니다> 김경수, 조은희 성도. (2선교회.1구역). 용현 ☎ 630-4568 ✉ 3 Queen Mary Ave. Epsom
 - <출국 > 윤형권 집사 3일(금)
 - <한국방문> 김성국 목사(29일-9월 10일)
- 오늘은 “이삭줍기주일”
 - *Silver Coin이 모아지는 이번 한달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린이들에게는 기다려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 “수요수도원” <이번주 수요일 저녁 7:30-8:30>
 -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가슴에 담고만 있었던 일들, 집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할 때 마다 간구하던 기도제목들... 이번 수요일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간구해 보세요
 - *기도 후 Hall의 따뜻한 난로가에서 차 한잔으로 몸도 녹이며 교제를 나눕니다.
- 봉사자
 - *화장실 청소(8월-9월): 백제성, 장유진 집사
 - *이삭줍기담당: 김봉희 집사
 - *성가대 지휘: 신경화 집사

◀**작한 시인들**▶
한번쯤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김재진

한번쯤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그때 그 용서할 수 없던 일들
 용서할 수 있으리
 자존심만 내세우다 돌아서고 말던
 미숙한 첫사랑도 이해할 수 있으리
 모란이 지고 나면 장미가 피듯
 삶에는 저마다 재철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찬물처럼 들이키리
 한번쯤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나로 인해 상처받은 누군가를 향해
 미안하단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으리

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다시 한번”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기회를 잃은 운동선수, 인간구원의 시간이 지나버린 게오르규의 “25시”, 젊은이들의 싱싱한 걸음을 지켜보는 노구의 인생... 어쩌면 우리도 가슴치며 후회할 아름다운 만남을 벽으로 막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살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후회없는 것으로 보내기 위해선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훗날을 후회 대신 그리움으로 가슴저미는 아름다움이 남아있지 않을까요?**